

隘路技術 紙上相談

호박 早期收穫 위해 비왕·캄프샬등 使用

덩굴성 품종은 10a 당 270~290주 심도록

【문】 호박을 조속재배하려고 한다. 定植요령은 어떻게 하는지?

【답】 호박을 정식(定植)할 밭은 적어도 정식하기 15일 전에 잘 갈아엎어야 한다. 1차 경운을 실시한 다음 완숙퇴비를 10a당 1,200kg, 석회 70~150kg(토양에 따라 조절)을 토양 전면에서 균일하게 뿌린 후 2차 경운을 시행한다. 그리고 이랑을 만들기 전에 10a당 깻묵 40kg, 용성인비 30kg, 염화칼리 15kg 및 요소 4,5kg을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호박의 재식거리는 작형과 체계에 따라 다르나 본래 고온에 견디는 힘이 약하고 장마철에는 백삭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밀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덩굴성품종일 경우에는 이랑넓이 1,8~2,1m에 주간거리 1.8m로 하여 10²당 270~290주를 재식하는 것이 좋고, 비덩굴성 품종일 경우에는 이랑넓이 1,2~1.5m에 주간거리 0,6~0,9m로 하여 10²당 720~750주 정도를 정식하는 것이 가장 합리

적이다.

정식하기 2시간 전에 육묘상에 충분히 물을 주어 흡수된 다음 가능한한 육묘상의 흙을 많이 붙여 모종삽으로 조심스럽게 모를 뜬다음 햇볕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늘을 지워 운반한다. 정식할 구덩이에는 상토를 두주먹 정도 넣고 뿌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흙을 덮는다. 절대로 깊게 심어서는 안되며 전에 흙에 문헌데 까지만 흙을 넣는다. 정식한 모주위를 둥그렇게 파고 충분히 물을 주어 스며든 다음에 다시 마른 흙으로 덮어 준다.

정식하기 1~2일 전과 정식 후 2일경에 비왕, 캄프샬, 나루겐(수화제)등의 엽면시비제를 잎 앞, 뒷면에 충분히 문도록 살포해 주면 활착이 촉진되어 생육의 정상화가 빨라 조기 수확을 가져오게 된다.

대나무 移植은 초봄이 適期

【문】 대나무를 옮겨심는 적

당한 시기와 그 요령은?

【답】 요사이 큰 나무를 옮겨심는데에 육중한 機重機를 쓰기 때문에 뿌리에 흙을 많이 붙일 수 있어서 옮겨심는 시기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옮겨심는데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초봄. 아직 생리적 활동이 시작하기전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나무를 옮겨심는 몇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① 鞭根 옮겨심기=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전강한 대나무의 땅속줄기(地下莖= 편근)를 끊어서 옮겨심는 것인데 편근에는 싱싱한 눈이 달려있는 1~2年生이 알맞고 節間의 직경이 2cm 정도에서 그 이상이 좋다.

길이는 40cm정도면 되는데 땅속에 이것을 옆으로 누이고 가는 흙을 10cm 가량 덮고 그위에 집을 깔고 물을 준다.

② 根株에 의한 법=근주라함은 地上莖에 地下莖(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붙인 것을 말하고 이것을 캐내고 개설할 대나무밭에 심는 방법을 말한다.

이미 개설 되어있는 대나무밭에서 대줄기를 땅위 알맞은 높이로 자르고 이에 40~50cm의 길이로 지하경을 붙여서 캐낸다. 이것을 母竹이식 법이라고도 한다. 바람이 불어 서대줄기가 흔들리면 좋지 못하므로 지주를 해주도록 한다. 철사로 이것을 고정하기도 한다.

좋은 흙에 구덩이를 파고 죽묘를 심은 다음 흙을 채우고 충분히 관수를 한다.

直播栽培 수세미는 低品質생산

깻묵등 유기질비료 충분히 사용토록

【문】 수세미의 재배 및 정식 방법과 시비 요령은?

【답】 수세미 재배방법에는 직파재배와 이식재배의 두가지가 있다. 직파재배는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 생육일수가 짧아져서 개화 성숙이 지연되어 좋은 품질의 것을 생산하기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식재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3월 중, 하순경에 온상 또는 비닐보온 파종상에 10a당 6,6m² 정도의 면적에 0,5l 내외의 종자를 파종하여 약 40일정도 육묘하여 본잎이 3~4매 정도 나오면 정식을 실시한다. 정식은 대개 4월 하순~5월상순경이 된다. 재식밀도는 이랑나비 120~180cm, 주간 60~75cm로 하여 한주씩 이식한다. 드물게 재식하면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병 발생이 적어 우량한 품질의 수세미를 생산할 수 있다. 울타리나 철조망등에 심을 때는 한줄로 포기사이 70~90cm 간격으로 한포기씩 정식한다. 수세미는 생육기간이 길고 잎과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므로 다량의 비료분이 요구되며 장기간 비료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퇴비나 깻묵등의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한다.

비료 사용량은 재식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a당 3요소성분량으로 질소 15,0~22,5kg, 인산 11,3~15,0kg, 칼리 20~22,5kg 정도를 기준으로 주어야 한다. 그런데 밀거름은 10a당 퇴비 1,500kg, 요소 15kg, 중과석 30kg, 염화칼리 30kg 정도를 정식하기 5일전에 밭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하여 경운하고 이랑을 만들어 정식한다. 1회 웃거름은 6월 중순경에 요소 10kg 정도를 수세미 포기사이에 주고 2회 웃거름은 요소 15kg, 염화칼리 15살 정도를 이랑사이에 알개 물을 파고 준다음 복토 한다. 수세미는 중경제초(中耕除草) 작업 이외에도 시령을 설치하여 그 위에 줄기를 올려 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줄기가 2m정도 자랄때까지는 지상에 두었다가 6월 중순경에 시령에 올린다. 줄기 1,5m 본엽 7,8매 정도 일때 첫꽃이 피는데 따 주고 본엽 27매 정도일때부터 착과시킨다.

4~5월경 마늘 녹병 발생 다코닐수화제 살포하도록

【문】 마늘 녹병의 발생시기와 방제대책은?

【답】 마늘 녹병의 발생시기는 4~5월경이나 특히 4월 중순에 많이 발병하여 심한 피해를 준다.

처음에는 잎 표면에 적색과 갈색의 타원형 또는 방추형으로 다소 융기한 병반으로 팽창한다. 오래되면 그 중앙부는 점차로 등황색으로되고 길이로 쪼개져서 황적색의 분말(霞肥子)을 날리며 말기에는 병환부가 흙색의 원형으로 변하여 방추형의 소반점이 만연하게 된다.

이 병의 발병원인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과습한 토양에서 발병이 심하다. 방제법은 과습한 토양일 경우 배수가 잘 되도록 유의하고 피해엽은 발견 즉시 제거하여 땅속 깊이 묻거나 태워 버리며 마늘 수확후에도 병든잎을 모아 소각해야 한다. 마늘 생육도중 비료분의 결핍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시에 균형시비를 실시하고 질소질 비료성분의 과다를 피하여야 한다.

약제 방제로는 마늘에 녹병이 나타나기 전인 4월 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3~4회 살균제를 균일하게 살포한다. 이병에 효과적인 농약에는 다코닐수화제 800배액이나, 다이젠 M-45, 다이젠 400배액 또는 4-4식 석회보르도액을 뿌려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발병초기에는 2~3일 간격으로 상기한 살균제와 엽면시비제인 비왕, 나루겐(수화제), 캄프살등을 혼용하여 살포함으로써 부족한 비료성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살균작용이 이루어져 마늘생육의 정상화가 촉진된다. 약을 뿌릴때는 전착제를 뿌려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편집부>